

주요용어 : 간호학생, 임상실습, 체험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 연구*

박 경 숙** · 황 윤 영*** · 최 은 희****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임상실습 교육은 학교에서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것으로 간호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서 지식과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총체적인 간호지식의 습득이 가능해지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반성의 폭을 넓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간호관을 형성하게 되며 미래의 간호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보다 더 구체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임상실습 교육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간호학생은 낮은 환경과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임상실습 교육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Hanna, 1997),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임상실습 중에 직면하게 된 실무와의 괴리감 속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간호학생으로서의 모호한 위치에 적응

하지 못하고 자신을 주변인으로 생각하여 자신감을 상실하고, 간호지식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서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과 간호에 대해 심한 회의감을 갖게 되어 증도에 간호학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교육 중에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학생이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게 되는 체험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한 연구나 정신간호학 실습 경험과 관련된 연구는 수 편 찾아볼 수 있으나(Ko & Kim, 1994; Shin, 1996; Seo, Kim & Chon, 1996; Moon, 1998; Lee, 1994), 아직까지 중환자실 실습 경험에 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중환자실은 위기에 처한 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치료기구를 사용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간호가 제공되는 곳이기 때문에, 간호학생은 긴장되고 위축된 상태에서 소극적으로 임상실습에 임하게 되기 쉽다(Kim, 1995).

* 본 연구는 2002년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제주한라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중환자실 수간호사

투고일 2002년 12월 20일 심사위원회 2002년 12월 30일 심사완료일 2003년 8월 25일

특히 다른 임상실습 환경에 비해 대상자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곳이므로, 간호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도 다른 임상실습 환경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을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험의 의미를 밝히는 기술적 연구로서의 현상학적 측면과, 체험과의 개인성을 통해 객관화된 기술 속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학적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는 Van Manen(1990)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II. 본 론

1. 체험의 본질에 집중

체험은 현상학적 연구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이다. 체험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서 현상을 지향하고 현상학적 질문을 형성하며 가정과 선이해를 설명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을 지도하면서 간호학생이 중환자실 실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중환자실 실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현상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지향을 통해서 형성된 현상학적 질문은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 내내 현상학적 질문을 지향하기 위해서 먼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선이해와 가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나는 중환자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간호학생일 때 중환자실 임상실습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판단을 증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선이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단계와 분석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고찰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연구자가 중환자실 임상

실습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이해와 가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첫째, 간호학생은 중환자실의 상황에 당황할 것이다.
- 둘째, 간호학생은 중환자실의 상황에 적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 셋째, 간호학생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 넷째, 간호학생은 삶과 죽음에 대해 숙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다섯째, 간호학생은 간호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2. 실존적 탐구

1) 어원추적

어원에 주목하다 보면 단어들이 나오게 된 원천인 체험과 생생한 관계를 맺고 있던 본래적인 생활형식과 만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 중환자실, 임상, 실습의 어원을 살펴보았다.

중환자(重患者) : 중병을 앓는 환자

중환자실(重患者室) : 집중가료실(集中加療室)

임상(臨床) : 병상(病床)에 임함

실습(實習) : 실지로 해보고 익힘. 주로 실과(實科)에 관한 일을 현장이나 실습실 등에서 행하는 학습(Lee, 1999)

중환자실은 중증도가 높은 대상자에게 집중적인 치료가 시행되는 곳으로, 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상 빈번한 응급상황의 발생과 함께 삶과 죽음이 늘 가까이 공존하고 있는 곳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2) 문학과 예술작품에서의 경험적 묘사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과 관련된 문학과 예술작품은 찾을 수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 관련된 시와 중환자실 봉사체험기, 그리고 간호학생의 첫 실습 소감문 등을 참고로 하였다. Choi(2003)는 〈중환자실에서〉라는 제목의 시에서 중환자실을 병마와 신음으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곳으로 표현하면서, 희망의 꽃이 피어나 완전한 치유(나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염원을 이루기 위해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중환자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무력함의 표출로 고려해볼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
 생활에 묻은 먼지 같은 질병으로
 병마의 굴뚝에 솟아오르는
 신음의 연기가
 상처의 쓰라림 위에
 아픈 세상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쓰라림의 기쁨 위에
 소망의 꽃이 피어나기를

.....
 몸이 아픈 삶을 어루만져주고
 아픈 맘을 다독여주어
 한 알의 단단한 씨앗 속에
 우주를 열어젖히는 희망이 피어나기를

 병마의 장벽으로
 어둠이 깔려
 고통으로 눈물겹지만
 주의 공활의 빛살로
 완전한 나음을 향해 달려가게 하소서

〈꽃 동네 봉사체험기〉에서 봉사자는 신체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실감하며 새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정상인의 역할에 대한 자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리과를 통해 집수를 마치고 봉사할 곳으로 노인 센터 남중환자실로 배정받았다.

.....
 팔다리가 굳어 전혀 펴지지 않는 분을 비롯하여 다리가 한쪽 또는 양쪽이 잘려 나간 분들을 보면서 신체가 멀쩡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실감할 수 있었고 정상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을 되내이게 하였고.....

첫 학기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은 〈첫 실습을 마치며〉에서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실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훌륭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힘겹고 바빴던 실습은 끝이 났다. 많이도 배웠지만 많이도 힘들었던 생활..... 간호과 학생으로서의 첫 실습. 간호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인 실습..... 실습을 마치며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 것은 좋은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더욱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실습을 하면서 나의 무지에 많이도 실망했었다. 아주 많이도..... 하지만 그러한 실망감이 나에겐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꿀 수 있는 깨달음이 되었다.

3) 연구자 자신의 경험 기술

본 연구자는 학생 시절 3학년 임상실습 기간 중에 첫 실습지로 중환자실 실습을 하게 되었다. 중환자실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중환자실로 들어서는 순간 ‘뚜뚜뚜’하는 기계음속에 수액을 몇 개씩이나 달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얼핏 보기에도 ‘보통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호사로부터 중환자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서도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잘 파악되지 않았다. 기계에 둘러싸여 있는 환자들의 모습도 낯설었고, 여기저기서 울리는 알람소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일반 병동과는 모든 게 너무나 달랐다. 의식 없이 누워있는 환자들은 모두 다 위중해 보였고 감히 곁에 다가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환자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조차 알 수가 없었고,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기관내 삽관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나면 학교에서 배웠던 흡인을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주춤거려졌다. 그러다가 간혹 흡인을 시행할 때면 얼굴이 온통 빨개지면서 금방이라도 상체를 일으킬 듯이 움직이며 괴로워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곤 했다. 2시간 간격으로 시행되는 체위변경 때에는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잘 몰라서 간호사들이 하는 대로 잡고 당기면서 흉내만 낼 때도 있었다. 환자들의 대변을 치워야 하는 일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한 환자들을 볼 때면 자꾸 불안해서 환자의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곤 했다. 자신이 처한 상태도 모르고 의식 없이 누워만 있는 환자들이 너무 안쓰럽게 생각되었고, 내가 해 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런 우리들과 달리 중환자실의 간호사들은 능숙한 솜씨로 환자들을 간호했다. 바쁜 가

운데에서도 환자들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즉각적인 처치를 시행했고, 무의식 환자들을 대할 때에도 환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인지 간호학생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한 쪽에 우두커니 서 있게 되면 이런저런 눈치가 보여서 영 마음이 불편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거의 없었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견디기가 힘들었고,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떠올랐었다.

중환자실 실습은 어렵고 힘든 실습이었지만 일반병동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여러 상황들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간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었다. 그리고 이제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과정 중에 학생들의 중환자실 실습소감을 들으면서, 과연 학생들은 중환자실 실습을 통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4) 현상학적 문헌참고

Windsor(1987)는 간호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서 간호기술, 시간관리, 전문가로서의 사회화 등을 배우게 되며, 업무규칙에 대한 강박적 불안을 경험하는 단계와 간호사의 역할규명에 대해 고민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에 대해 연구한 Neil 등(1998)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으로 임상간호 상황에 자신의 역할을 반영함, 임상상황에서 배우고자 노력함, 적극적으로 지도자를 찾음, 간호사-대상자-동료와의 관계를 형성함, 자신의 간호기술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함의 주제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Colazzi의 방법을 사용하여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 경험을 연구한 Beck(1993)은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경험으로 불안을 느낌, 버려진 느낌을 받음, 실제적인 충격에 직면함, 스스로를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함, 잘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함, 미래에 대한 각오를 다짐 등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로 Shin(1996)은 Van Manen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간호학생의 첫 학기 임상실습 체험을 연구한 결과, 간호학생은 첫 학기 임상실습을 통해서 환상기, 혼란기, 미래를 향한 도전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간호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환상기를 지나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고, 혼란기 동안 현실충격, 준비되지 않은 이질

감, 이론과 수행의 괴리감, 간호정체성 혼란감, 인간존엄성 상실감, 다양한 역할모델로부터 오는 혼란을 겪으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미래를 향한 새로운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문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첫 임상실습 체험을 연구한 Park과 Kim(2000)은 첫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적인 주제로 두려움의 첫걸음, 이론과 실제 사이의 율동적 양상, 변화되는 자신의 발견과 확장 의식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실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며 첫 임상실습에 임한 간호학생은 실습을 통해 이론과 실제사이의 차이를 알게 되고 때로 간호사에 대한 실망감도 갖게 되지만,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인식하게 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였다. Ko와 Kim(1994)은 첫 임상실습을 경험한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간호학생은 첫 임상실습을 통해 긴장,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 피로, 실망과 회의, 성취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간호학생은 생소한 실습환경에 긴장하게 되고 간호기술의 부족과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간호학생으로서의 모호한 위치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느끼며 기대와 현실간의 차이로 실망과 회의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학습이 증진되고 간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성취감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5) 연구참여자의 개별체험

본 연구의 참여자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소재 C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2주 40시간동안 임상실습을 수행한 C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생 74명으로, 연구자가 사전에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 간호학생들에게 실습내용 전반에 대해 실습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1주일마다 제출하도록 하였다. 실습일지는 실습 중에 경험하거나 느낀 점, 실습 소감 등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진술하도록 사전에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실습일지가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2주간의 실습일지를 제출 받은 후에는 연구자 3인이 반복해서 읽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자연스럽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을 진행하기 위해 실습조별로 1회의 그룹면담을 시행하였다. 면담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중환자실 실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중환자실 실습을 통해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으로 시작하여, 실습 전반에

대한 소감과 함께 실습일지 중 모호한 부분에 대한 확인 등으로 진행하였다.

3.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현상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체험의 의미구조를 반성적으로 수용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현상학적 반성을 통해 현상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질적인 주제를 결정하기 위해 연구자 3인이 실습일지와 그룹면담 내용을 여러 번 읽으면서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을 나타내는 주제진술들을 분리시킨 후, 주제진술들 중 유사하거나 반복적으로 나타난 진술들끼리 묶어서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언어적 변형을 거쳤다. 언어적 변형과정을 거쳐 도출된 본질적인 주제는 현상학적 연구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과 박사과정생 1인에게 읽게 한 후 자문을 구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적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생소한 기계들과 낯선 상황에 긴장함
- 건강을 잃은 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
-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무력감
- 죽음을 직접 접하며 망연자실함
-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낌
- 가족의 애뜻한 사랑을 보며 대상자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
-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깨달음
-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인식함
-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수행을 발견함
-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

1) 생소한 기계들과 낯선 상황에 긴장함

간호학생은 새로운 실습 부서에 대한 기대와 걱정 속에 중환자실로 들어선 순간, 생소하고 복잡해 보이는 여러 기계들과 그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는 대상자들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낯선 상황과 분위기에 위축되며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뽐뽐..... 여기저기서 들리는 기계들 소리였다. 처음부터 움찔하게 하는 소리였다. 한순간 한순간이 긴장

되었다. 환자들은 억제대로 묶여 있었고,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수술 자국도 여러 곳에서 보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 들어선 중환자실의 모습은 너무나 생소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 지를 몰랐다. 정신 없이 울어대는 기계들이 나를 더욱 더 불안하고 긴장되게 했다.

처음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그 수많은 기계장치들 때문에 몹시 긴장이 됐다. 여기저기서 나는 땡땡거리는 소리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2) 건강을 잃은 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

간호학생은 자신이 처한 상황도 모른 채 의식 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들과, 건강과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힘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의식이 없고 힘이 없어 혼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참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나야 이제 죽는 일만 남았지. (신장을) 이식 받지 않은 한.....”라고 하시며 씩씩한 웃음을 지으셨다. 희망을 갖기보다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더 많아 보여서 너무 안타까웠다.

tracheostomy 때문에 몇 번씩 반복해서 들은 후에야 겨우 이해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만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나는 그저 손을 잡아 드리며 힘을 내시라는 말 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3)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무력감

간호학생은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발견하고 자신도 무언가 도움이 되고 싶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작은 도움 하나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깨달으며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과 부족함을 한껏 느끼게 된다.

suction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것도 왠지 자신이 없고 아무 것도 해드릴 수가 없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아무 것도 해드릴 수 없는 내가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졌다.

몸에 부착된 기계를 떼고 몸부림치는 환자의 마음을 진정시켜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작게만 느껴지던지..... 내 부족함을 한껏 느끼게 되었다.

실습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나의 무력함이다. 배우긴 배웠는데 자세히 생각은 안 나고, 설령 생각이 나도 실제로 해 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어설플는지.....

4) 죽음을 직접 접하며 망연자실함

간호학생은 처음으로 죽음을 접하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죽음에 할 말을 잃고 멍해지며 어쩔 줄을 몰라하면서 눈앞의 죽음을 쉽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던 죽음이 실제로는 가깝게 있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처음으로 환자의 죽음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백해진 환자의 얼굴과 몸, 그러면서도 들쭉이던 가슴, '0'을 나타내고 있던 EKG 모니터.....

하얀 시트로 얼굴까지 덮고 침대에서 힘겹게 끌려나가는 그 장면을 내 눈앞에서 생생히 볼 수 있을 줄이야..... 환자를 엘리베이터로 보낸 후에도 몸은 아직 긴장상태를 늦추지 못한 채 어쩔 줄을 몰랐다.

드라마를 통해서 봐 왔지만, 실제 상황이 되니 '과연 이 환자가 죽은 것이 맞나?' 하는 생각과 함께 순간 머리가 멍했다. 예상치 못한 때 다가오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 분이 밤새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루, 아니 몇 시간만에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니..... 죽음이 나에게서 먼 얘기인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보다.

처음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경험한 날이었다.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억지로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했었다. 누구나 저렇게 죽는데..... 산다는 것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5)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낌

간호학생은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채 의식 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난 오늘도 새삼스레 뼈저리게 느낀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내가 눈을 뜨면 가족을 항상 볼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온 몸에 여러 가지 기계들을 달고서 무의식 상태로 누워 있는 환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ICU에서 실습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생각한 것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

6) 가족의 애틋한 사랑을 보며 대상자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

간호학생은 대상자에 대한 가족들의 애틋한 사랑과 정성스러운 간호를 지켜보면서, 은연중에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한 명의 환자로만 생각했던 대상자 한명 한명이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환자 가족들이 환자에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고, 얼굴을 맞대어 보고, 차례로 들어와 기도를 흡인 해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호자가 환자의 얼굴을 쓰다듬어주거나, 아무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 얼굴을 맞대며 힘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서 그냥 '환자'이신 분이 보호자한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일 비싼 약만 써 달라는 할아버지, 누워 있는 할아버지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 주며 말없이 바라보고만 계시던 할머니.....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1분이라도 더 있으려는 보호자들의 모습과 환자들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보호자들의 애틋한 눈빛은 환자들 개개인에 대한 소중함과 함께 그들이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7)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깨달음

간호학생은 무의식 상태이거나 의사표현을 적절히 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 대한 간호제공시 간호사의 존중과 배려가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서, 대상자에 대한 세심하고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중환자실에서는 나이나 성별이 무시되는 듯했다. 의

식이 있는 환자도 몇 분 계셨지만, 회음부 간호를 하거나 환자의 신체를 노출해야 할 때에도 스크린을 사용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다.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무의식 환자의 경우는 더욱 주의 깊은 간호가 요구됨에도 그렇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의식이 alert하신 환자분께서 회진 중이니까 나중에 변을 치워 달라고 손을 저으셨지만, 간호사 선생님께서는 그냥 변을 치우셨다. 내가 가릴 수 있는 것을 가지러 가려 했지만 이미 벌써 다 치우신 상태였다.

프라이머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보였다. 체위변경을 할 때나 소·대변을 보실 때 가려드린다고는 하지만, 둘러보면 가슴을 드러내 놓은 채 누워 계시는 여자 환자분들이 많았다.

8)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인식함

간호학생은 대상자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치료와 간호과정 중에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과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실무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내가 배웠던 체위변경은 한 두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도록 적절하게 시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실제 임상에서는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두가지 방향으로만 체위변경을 실시했다.

의사소통책에 나오는 이론을 실제에는 적용할 수가 없었다. 개방적인 질문을 하라지만 계속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고 물을 수도 없고, ‘날씨가 좋죠?’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으니 대화를 지속하기가 어려웠다.

환자분이 다리를 버둥거리고 손을 휘저으며 얼굴이 붉게 변할 정도로 아파하셨는데, 그냥 지나치는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호란 cure가 아니라 care이며 인간을 간호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레지던트 선생님이 gavage feeding을 위해 L-tube를 삽입했는데, 책에서 본 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았다. 무균을 꼭 지키라고 배우고 또 배웠는데 임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9)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수행을 발견함

간호학생은 대상자에 대한 간호사들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간호수행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중환자실을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전문적인 간호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기게 되며 동시에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곳

으로 느끼게 된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단 1분도 헛되게 사용하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수시로 환자들에게 시선을 주시며 상태를 살피셨다. 철저하고 정확하게 간호를 수행하고 계셨다.

ICU 선생님들은 단순히 order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처치에 대한 이유가 분명했다.

중환자실에서 실습을 하면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간호를 본 것 같다.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이 존재하는 곳인 것 같았다.

주체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멋져 보였다.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의사의 조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뒤엎는 모습들이었다.

10)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

간호학생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간호사들의 모습과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인간을 배려할 줄 아는 유능하고 따뜻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간호사 선생님들의 유능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싶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습을 하면서 절실히 느낀 것은 좀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해서 똑똑해져야겠다는 것, 그리고 환자들을 더 많이 배려해야겠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하여 더 많이 배우고 더욱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학생간호사라서 skillful하고 사랑이 깃든 간호를 과학적으로 해주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환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멋진 간호사가 되겠노라고 다짐했다.

4.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는 좀 더 생생한 체험들을 읽어낼 수 있도록 다시 생각하고 다시 고쳐쓰는 글쓰기 과정이 포함된다.

간호학생은 중환자실에 대해 들어왔던 여러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기대와 걱정 속에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

실 실습을 시작하게 된다. 실습 첫 날 아침 중환자실에 들어선 간호학생은 생소한 기계들, 시끄럽게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의료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낯선 상황에 불안과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잠시 후 중환자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나서 간호수행을 관찰하고 체위변경 등을 돕던 간호학생은 의식이 없거나 회복가능성이 희박한 채 힘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들을 대하게 되면서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대상자들을 위해서 뭔가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지만, 실제로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던 중 간호학생은 처음으로 죽음을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되고, 갑작스러움에 한동안 할 말을 잃고 멍해지며 어쩔 줄 몰라하면서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죽음을 쉽게 실감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간호학생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달으며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건강하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보호자 면회시간을 지켜보게 된 간호학생은 애절한 사랑과 정성으로 대상자를 간호하는 보호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의식 없이 누워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들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보호자들과는 달리 대상자들에 대한 간호 수행 시 세심한 배려와 인격적인 존중이 부족한 간호사들의 모습과,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과 실무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간호학생은 중환자실 간호사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수행을 보게 되면서 간호의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 간호에 대한 긍지를 느끼게 되며, 자신도 미래의 유능하고 인간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간호학생의 간호요구에 대한 민감성의 향상과 효율적인 간호중재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어 간호지식체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임상실습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여 임상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간호중재 개발에 사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Van Manen의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험의 본질에 집중, 실존적 탐구, 해석학적 현상학적 반성, 해석학적 현상학적 글쓰기의 4단계를 거치며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서울 소재 C 대학교 부속병원 중환자실에서 2주 40시간 동안 임상실습을 수행한 C 대학교 간호학과 3학년생 74명으로, 자료수집은 실습내용 전반에 대한 실습일지의 작성과 그룹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해석학적 현상학적 방법으로 주제를 분석하고 언어적 변형을 거쳐 나타난 간호학생의 중환자실 실습체험의 본질적 주제는 「생소한 기계들과 낯선 상황에 긴장함」, 「건강을 잃은 대상자에 대한 안타까움」,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무력감」, 「죽음을 직접 접하며 망연자실함」,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낌」, 「가족의 애절한 사랑을 보며 대상자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을 깨달음」, 「이론과 실무의 차이를 인식함」,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수행을 발견함」,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으로 나타났다. 간호학생은 중환자실의 낯선 상황과 분위기에 긴장하게 되고, 건강을 잃어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대상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러한 대상자들을 위해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죽음 앞에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하면서 다시 한 번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간호학생은 대상자에 대한 보호자들의 애절한 사랑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대상자들을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대상자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의 필요성과 함께 이론과 실무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중환자실 간호사의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간호수행을 통해 간호의 독자적인 영역을 발견하고, 자신도 중환자실 간호사처럼 유능한 간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2. 제언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환경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간호학생이 중환자실 임상실습 중에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Hanna, A. (1997). Nursing student's stress during the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 Nurs Edu, September 36*(7), 323-7.

Kim, K. M. J. (1995). Clinical practice in intensive care unit of nursing students. *The J Margaret Pritchard College, 10*(1), 7-20.

Ko, S. H., & Kim, K. M. (1994). An Initial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Nurs, 33*(2), 59-71.

Lee, H. S. (1999). Korean Dictionary. Minjungseorim.

Lee, J. S. (199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 Korean Acad Psychiat Nurs, 3*(1), 15-28.

Moon, M. S. (1998).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The J Korean Acad Socie Nurs Edu, 4*(1), 15-27.

Neil, K. M., McCoy, A. K., Parry, C. B., Cohran, J., Curtis, J. C., & Ransom, R. B. (1998). The Clinical experience of novice students in nursing. *J Nurs Edu, 23*(4), 16-21.

Park, M. Y., & Kim, S. Y. (2000).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udents first clinical experience. *The J Korean Acad Socie Nurs Edu, 6*(1), 23-35.

Seo, M. S., Kim, M. H., & Chon, M. Y. (1996).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clinical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The Korean J Funde Nurs, 3*(1), 128-139.

Shin, K. R. (1996).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and discovery of meaning in nursing students'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Adult Nurs, 8(1), 156-168.

Sohn, S. K., Chung, B. Y., Chung, S. E., Park, J. M., & Lee, S. Y. (1997). A Study of the clinical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 Korean Acad Socie Nurs Edu, 3*, 59-77.

Van Manen (1990).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Express.

Windsor, A. (1987).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clinical experience. *J Nurs Edu, 26*(4), 150-4.

Chang, J. H. (2003) <First clinical practice ending> http://yeongdong.hakbo.co.kr/88_07.htm

Choi, J. I. (2003) <In ICU> <http://column.daum.net/Column-bin/Bhs.cgi/servicerbs/qry/zka/B2-kD2Rp/qqatt/%5E>

Cho, H. R. (1999) <Kkotdongnea service experience> <http://macjinmed.com/products/service/ser1.htm>

- Abstract -

The Study of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ntensive Care Unit*

Park, Kyung-Sook** · Hwang, Yun-Young***
Choi, Eun-He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nursing students' on-site clinical experience at intensive care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Grants in 2002.

** 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 Fulltime lecturer, Dept. of Nursing, Cheju Halla College

**** Head Nurse of Intensive Care Unit, Chung-Ang University Hospital

unit(ICU), which will help on developing fundamental tool to enhance the effect of their clinical practice. Method: Van Manens hermeneutic-phenomenological method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data. Participants consisted of 74 third-year nursing students who performed the clinical practice at an ICU in C university hospital. The students got the group interviews and kept the clinical diaries. Data was collected from series of group interviews and contents of the students clinical diaries. **Result:** Major concerns related to students clinical practice were found as follows :「being nervous about unfamiliar machines and situations」, 「being frustrated about the patients」, 「feeling of helplessness」, 「being stupefied from witnessing a death」, 「realizing the importance of health」,

「realizing individual patient's precious value through family's love」,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reating a patient as humanbeing」, 「realiz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modelizing two aspects of nursing: professional and personal」, 「readiness to become a capable nurse」. Conclusion: We are able to obtain in-depth understandings about the nur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at the ICU. Based upon this,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better nursing intervention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Key words : Nursing student, Clinical practice,
Lived experience